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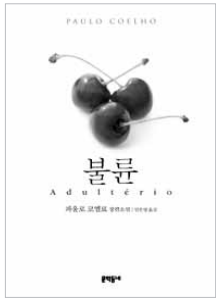
“마음껏 사랑하는 것은 마음껏 사는 것이다” 불륜을 통해 깨닫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

불륜

파올로 코엘료 지음

뻘뻘 즐거웠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30대 주부의 불륜, 아내의 일탈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기다리는 남편. 사랑의 참뜻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주부.

파올로 코엘료는 장편 ‘불륜’(문학동네)에서 이런 통속적인 열거를 이용해 역설적으로 ‘참사랑’을 이야기 하는 만만찮은 내공을 보여준다. 주부가 고교 동창생과 바람피우는 상황을 그려내면서도 작가는 진지하게 ‘진정한 사랑’을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읽기 거부한 성격묘사도 등장하지



영혼의 연금술사가 전하는 ‘사랑의 목시록’

만, 역설적으로 이런 장면은 읽는 이를 강하게 밀어붙인다. 사랑을 되짚어 보도록. 어쩌면 독자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사는 부부의 관계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스위스 제네바에 사는 30대 주부 린다는 신문기자로서 완벽한 삶을 영위한다. 남편은 경제통계에서 빠지지 않는 재벌에다 무척 가정적이다. 미모와 재력, 모든 것을 겸비한 그녀에게 무엇이 부족할

까. 바로 반복되는 일상의 권태와 우울이다.

그녀는 우연히 정치인이 된 학창시절 남자친구 야코프를 인터뷰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결국 린다는 남편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게 된다.

아내를 묵묵히 지켜보온 남편의 진술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사랑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야 해. 사랑은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만화경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건 없고 항상 변하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게 되어 버려.”

‘영혼의 연금술사’ 코엘료 특유의 목시록 같은 말들이 소설의 곳곳에 등장해 묵직한 울림을 준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경험이다. 시간도 아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마음껏 사랑하는 것은 마음껏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숨에 읽을 수 있어 휴가지에 들고가도 좋을 듯하다. 스위스 제네바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8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작가가 소설의 배경으로 실제 지명과 거리, 명물 등을 등장시켰다.

〈문학동네·1만38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지두환 譯
‘조선과거기록’
(동연 刊)

나라가 어지럽다. 부적격 내각인선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되어 있다. 반민족식 민사관으로 시작해 위장전입, 탈세, 정치공작, 투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강탈, 거짓말, 위증 등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사들로 가득했다. 내각 개편을 통해 국가를 개조시키겠다고 내세운 후보들의 면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줬다. 오히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 인제는 숨어 있다. ‘오직 내 편’만 싸고도는 눈에 ‘참 인제’가 보일 리 없다.

고대, 요임금은 현인 허유(許由)를 재상에 임명하려 했다. 허유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영수(領水) 강가에서 귀를 씻었다. 왕이 인제를 찾다니고, 인제는 숨어버린다. 이런 이상사회는 너무 아득하니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명문명답’으로 읽는 조선과거기록’은 왕의 책문과 그 질문에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답문서가 실려 있는 책이다. 조선의 대학자 23인의 장원급제 답안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정책의 토론향이었다. 과거제도는 나라를 이끌어갈 이념의 확립, 나라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발언의 장이었다. 정치인과 관리, 조직을 통할하는 관리자들의 덕목과 지침들의 정수가 바로 과거시험의 답안에 응축되어 나타났다. 왕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 왕은 책문을 통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학문, 관습, 제도 등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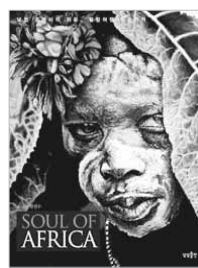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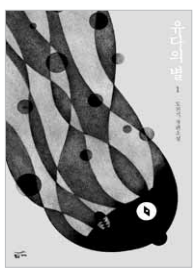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유다의 별(전 2권)=도진기 장편소설. 1920~1930년대에 실존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 백백교를, 현대에 벌어지는 잔인한 살인사건과 접목시켜 기발한 상상력으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작가의 전작 ‘정신자살’, ‘붉은 집 살인사건’ 등에서 재치 있는 유머와 예리한 추리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주인공 ‘어둠의 변호사’ 고진이 열혈 형사 이유현과 함께 다시 한번 맹활약을 펼친다.

〈황금가지·각 권 1만3800원〉

▲X의 즐거움=‘뉴욕 타임스’ 독자들이 환호한 수학 칼럼을 엮은 책. 하버드와 MIT 학생들이 영화배우보다 더 환호하는 괴짜 수학자 스티븐 스트로가츠가 어른의 눈높이에서 수학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려 주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수학 본능을 일깨워준다. 저자는 이 책 한 권으로 유치원 과정의 산수에서부터 대학원 과정의 대수학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



며 독자들을 즐거운 수학의 세계로 안내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정절의 역사=‘정절’의 키워드로 조선시대의 내밀한 역사를 살핀 책. 저자 이숙인은 남녀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가 결합된 정절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호관계성의 개념이지만, 조선에서는 여성 일방의 의무개념으로 전개됐다고 말한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과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효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허위자의 의무였다는 것이다. 책은 정절에 내포된 복합적인 의미와 그 숨겨진 비밀을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여성의 또 다른 진실을 담

아냈다.

〈푸른역사·2만원〉

▲SOUL OF AFRICA=여행작가이자 사진작가인 함길수는 10년 동안 아프리카 전역 17개국 46개의 도시를 종단하고 횡단하며 몸으로 축적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한 권의 책이 탄생했다. 책은 아프리카의 다양성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포토 컬렉션이다. 저자는 아프리카 북단, 모로코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남아공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길 위에서 깨닫는 상념과 삶의 편린들을 통해 작은 소망을 품게 됐다.

〈상상출판·1만5900원〉

▲인도, 아름다움은 신과 같아=‘아시

아의 미’ 시리즈 첫 번째. 인도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미의 이상형은 어떤 모습이며, 인도의 미인은 서구의 미적 이상형과 어떻게 다르며, 다른 아시아, 특히 중국의 미인과는 달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1장에서는 인도에서 신과 같은 미의 개념, 2장에서는 인도 여성의 미적 이상형, 3장에서는 이상형을 추종한 여성의 실제 삶과 연계된 아름다움을 들여다본다.

〈서해문집·1만5000원〉

▲실패의 사회학=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실패가 교훈으로 남을까? ‘실패의 사회학’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실패는 용납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실패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패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다. 어떻게 실패하는가, 또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실패를 용납해야 하는가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다.

〈처음북스·1만5000원〉

어린이 책

▲밭의 노래=이해인 수녀의 시로 만든 첫 그림책. 밭에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채소와 식물, 곤충들을 정겹게 그리고 있다.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와 열매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한 어린이부터 어린 시절 보았던 밭의 풍경이 그리운 어른까지 함께 읽으며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다.

〈샘터·1만2000원〉

▲아빠는 방랑요리사=‘가족’을 키워



드로 한 단편동화 8편을 모았다. 이 동화집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가족 이야기는 훼손되고 붕괴된 가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가족 해체로 인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가족의 위기를 딛고 새로이 재구성하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

〈청개구리·9800원〉

▲명탐정 티미=만화 작가 스테판 파스티가 쓰고 그린 첫 어린이책. 1권 풍망 실패 주식회사에 이어 2권 위대한 탐정 뱀기 대회가 나왔다. 짧고 유머러스한 글, 개성 있는 캐릭터와 단순한 그림만으로 독자들을 웃기고 울린다. 조금은 엉뚱하고 허

무한 말장난 속에는 영화와 문학, 속담을 변주한 작가의 재치가 숨어 있다.

〈시공주니어·1만원〉

▲채소 동물원=주인공 사라는 말도 못하고 한곳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채소가 가 없애졌다. 그래서 채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소 동물원’을 만들어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구축해 간다. 독자들에게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생명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짚어 준다. 〈내인생의책·1만2000원〉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s12@hanmail.net

